

## 『드넓은 조해』: 탈노예제도와 식민지 구질서의 해체

이진준  
서울대학교

Lee, Jin-Joon. (2002).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destruction of the older order in the post-slavery colony. *Revista Iberoamericana*, 13, 227-251.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the English colonies in the West Indies had undergone a radical change since the Emancipation Act of 1833. The Act shifted the economic base; by putting an end to slavery, it put an end to the class of slave holders. Creoles, the traditional ruling class and slave holders, rapidly went to the dogs and the new whites from England filled the vacuum, and, as a result of it, the cultural and racial conflicts among Creoles, the new whites and the blacks assumed more complex aspects.

Creoles as well as the blacks and the new white ruling class, and perhaps more than any other group, experienced a serious confusion in identity for the emancipation and the succeeding de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older order. Antoinette, for example, explored her new identity from the blacks, but she failed in it because of her deep-rooted racial prejudice and superiority complex about the blacks. And also she tried to establish her identity as a 'true English' by marrying Rochester but after all became the victim of the patriarchal system and Rochester's malice and lack of sympathy. As for the new white bourgeois like Rochester and Mr. Mason, they tried to reorganize the West Indies for their benefit with modern laws and social systems, and reinforce their power by demoting Creoles as an inferior race/class and ignoring the entity of the blacks. They armed themselves with reason and rationality and judged all things from their standpoint, but behind the white mask they could not overcome doubts and anxiety about their moral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blacks like Christophine, Daniel and Amelie resisted to Creoles and the new whites with various ways and tried to overthrow their hegemony. In the work, almost all of the blacks were marginalized and described as negative figures, but their negativity and marginality revealed the inhumanity and cruelty of the white culture which made the sub-culture of the blacks.

In conclusion, *Wide Sargasso Sea* is an effective throw-back to the imperial narrative in Emily Bronte's *Jane Eyre*: it not only restores the various voices of the minorities of the West Indies which were buried by the English colonialism, but shows the possibility of locating them in the center of the colonial history.

## I.

진 리스(Jean Rhys)는 1958년 4월 9일 셀마 바즈 디아스(Selma Vaz Dias)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소설 『제인 에어』(Jane Eyre)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는다.

나는 『제인 에어』를 읽고 또 읽었다... 샤훈 브론테 소설의 크리올은 허수아비이다—불쾌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도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 그녀는 줄거리에 필요하지만 항상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소름이 끼치게 웃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무대 밖에서. 내가 보기에... 그녀는 무대 위에 있어야 한다. 그녀는 적어도 과거, 로체스터 씨가 그녀를 그토록 혐오스럽게 다루면서도 정당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가 미치는 이유, 심지어 그녀가 모든 것을 불질러버리려 하고 결국 성공하는 이유가 그럴 듯 하게 있어야 한다.<sup>1)</sup> (강조 원문)

위의 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리스는 『제인 에어』에서 제 목소리

1) Veronica Marie Gregg, *Jean Rhys's Historical Imagination: Re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5), p. 82에서 재인용.

를 박탈당하고 감금된 ‘미친 여자’의 목소리를 『드넓은 조해』(*Wide Sargasso Sea*)를 통해 되찾음으로써 서인도 제도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고발한다. 즉 그녀는 『드넓은 조해』에서 서구의 지배적인 언술을 되받아 치고 해체함으로써 그 언술에 잠복되어 있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폭로하고 제3세계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복원하려 한다.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 침탈은 피지배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들을 과거 역사와 단절시킨다. 서구는 식민지화된 사회의 모든 기존 체제와 가치와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폐기하며, 식민지를 그들이 의도한 질서에 따라 재편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시각에 맞게 새로이 규정하고 명명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제로 이식해 그들의 영혼마저 식민화한다. 그 결과 피지배 민족은 역사로부터 단절되고 물화되어 자기상(self-image)의 정립에 심각한 장애를 경험한다. 즉 그들은 식민지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되고 비주체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제3세계의 식민지화에 따른 이런 문제는 비단 피지배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많은 경우 식민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처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인간성이 말살된다.

리스의 소설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탈노예제도 사회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새로운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 지배자와 탈노예제도 시대에 새로이 들어온 식민지 본국 지배자의 관계이다. 탈노예제도 사회에서 과거의 지배자들은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어느 집단보다도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그들은 과거의 피지배자들과 어떤 문화적, 인종적 유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지배자들은 그들을 ‘크리올’이라는 새로운 열등한 계급 내지 인종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과거 피지배자들은 그들을 “하얀 바퀴벌레들”이라고 경멸하며, 본국의 새로운 지배자들은 그들을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집단 내지 또 다른 착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하얀 니그로”라고 자조적으로 부른다. 그들은 식민지 본국과의 유대를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감만 확인하며 더 나아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서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으로 등장하는 ‘미친 여자’는 제인의 언술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된다. 제인은 빅토리아 조 영국 사회의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억압된 자신의 여성성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가부장제 질서에 포섭된 자신과 식

민주주의의 희생물로 전락한 버사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나 유대감도 느끼지 못하며, 버사라는 인물을 낳은 영국의 잔인한 식민주의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제인에게 버사는 “악독한 독일 마귀—흙혈귀”<sup>2)</sup>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그녀는 세인트 존 리버스(St. John Rivers)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도에 대해 아주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인도는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죽음과 순교의 땅이다. 인도에 대한 그녀의 그런 그릇된 관념은 인도의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세인트 존의 오만함만큼이나 제국주의적 욕망과 편견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제인의 이런 잠재적 인종주의 내지 편견은 그녀가 당대의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당대 영국 사회와 그것이 담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이런 물이해와 무의식적인 내면화는 그녀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적인 사회 질서에 철저히 포섭되고 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반면에 『드넓은 조해』에서 앙투아네트(Antoinette)는 버사와는 달리 억압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탈노예제도 사회의 몰락한 크리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크리스토파인(Christophine)을 비롯한 흑인들을 타자화한다. 흑인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많은 경우 사회적 통념의 산물로, 흔히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형태를 띤다. 그녀에게 그들은 모두가 “꼭 같은 얼굴”<sup>3)</sup>을 지녔으며 그들의 고탈소리는 “동물들이 울부짖는”(38) 소리처럼 들린다. 그녀에게 흑인들은 열등하고 야만적이며 추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언술은 제인의 언술을 다른 의미에서 반복하고 있으며, 제인이 결국에는 가부장제적 질서에 포섭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식민주의 전략에 포섭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한편 리스는 『드넓은 조해』에서 앙투아네트를 버사와는 다른 시대로 옮겨옴으로써 그녀의 비극을 좀더 서인도 제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한다. 즉 『제인 에어』의 배경은 19세기 초반이지만 『드넓은 조해』는 영국이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들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1833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노예해방으로 식민지 경제는 급격하게 붕괴되었으며 그것은

2) Charlotte Bronte, *Jane Eyr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60), p. 286.

3) Jean Rhys, *Wide Sargasso Sea* (New York: Norton, 1982), p. 42.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밝힘.

그대로 구지배 계급의 몰락을 의미했다. (일례로 이 노예해방은 리스의 모국 도미니카의 주요 작물인 커피 생산의 급격한 감소—1833년의 총생산이 1,612,528파운드에서 1838년에는 43,079 파운드로 감소—를 초래했다.<sup>4)</sup> 그리고 그것은 소설 속에서 앙투아네트의 가족이 겪은 심각한 경제적 시련을 설명해준다. 이처럼 시대배경을 바꿈으로써 리스는 노예해방이후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서인도 제도에서의 인종간 갈등 및 여러 사회적 모순을 훨씬 더 첨예하게 드러낸다.

## II.

이 소설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앙투아네트의 어린 시절을 그녀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으며, 제2부는 결혼 이후의 생활을 남편 로체스터(Rochester)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제3부는 그녀가 영국에서 '미친 여자'로 로체스터의 저택 다락방에 감금된 후의 이야기를 그녀의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소설이 앙투아네트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복원한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량의 3분의 2 가량이 제2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인 에어』에서 버사의 목소리가 제인에 의해 억압되었다면, 이 소설에서 앙투아네트의 목소리는 로체스터의 목소리에 위협 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부장적 지배 언술에 잠식되어 침묵을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언술의 간섭을 받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단하게 로체스터의 지배적 언술에 억압되며 그에 의해 왜곡되고 재해석된다. 또한 그녀의 언술은 배다른 혼혈 형제인 다니엘(Daniel)의 악의에 찬 서술에 의해 논박당하고 부정될 위험에 처한다. 더구나 노예해방 이후 서인도 제도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난 크리올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배제되어 있다. 그 사회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할 권위를 지닌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 결

---

4) Patrick Colm Hogan, *Colonialism and Cultural Identity: Crises of Tradition in the Anglophone Literatures of India, Africa, and the Caribbe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p. 99.

과 그녀의 목소리는 강한 방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노예해방 이후 새로운 주류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귀속의식과 그 사회로부터의 배척 사이의 긴장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앙투아네트의 정신적 외상(trauma)의 근원은 크게 노예해방 이후 그 가족이 겪은 지독한 가난과 백인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고립과 소외, 흑인들이 부단하게 가하는 경멸과 멸시 및 쿠리브리 저택에 대한 흑인들의 방화이다. 노예해방은 크리올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18) 닥친 변화이다. 크리올들은 그런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급격히 쇠퇴하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흑인들에게 포위되고 만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본국에서 밀려온 새로운 지배계급이 차지한다.

크리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정한 모국’이 없다는 점이다. ‘모국’의 부재로 인해 그들은 노예해방 이후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의 민족이 그들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 전에 여기에 살았던 우리를 모두 그들은 그렇게[하얀 바퀴벌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 영국 여자들이 우리를 하얀 검둥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들 사이에서 전 종종 제가 누구이며 제 조국이 어디이며 제가 어디에 속하며 제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요. (102)

서인도 제도에서 지배계급으로서의 그들의 불안한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던 것은 단지 노예제도와 그것에 바탕을 둔 흑인 노동력의 착취였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들은 뿌리뽑힌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의미 없는 저항을 한다.<sup>5)</sup>

앙투아네트의 경우 ‘모국’의 부재는 크게 쿠리브리 장원의 소실과 어머니의 부재로 대변된다. 가장장제적인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어머니에게 딸인 앙투아네트는 “쓸모 없는” 존재로, 그녀는 일찍부터 모성을 갈망하지만 번

5) 예컨대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안네트(Annette)가 몰락한 이후 흑인들의 멸시의 눈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을 타고 산책을 다닌 것은 지배계급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노력의 표현이었지만 그것도 흑인들이 말을 독살해버림으로써 끝난다. 또한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인 러트렐(Luttrell)은 영국 정부가 노예해방을 하면서 크리올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보상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자살하고 만다.

번이 어머니에게서 거부당한다. 오히려 그녀가 갈망하는 모성의 풍요로움은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쿠리브리 저택에 각인되어 있다. 그곳은 그녀에게는 에덴 동산이자 “신성한 곳”(132)이었지만 노예해방으로 폐허가 되어 버렸다. (“우리 정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정원만큼 크고 아름다웠다—그곳에는 생명의 나무가 자랐다. 그러나 그것은 황무지가 되어 버렸다. 오솔길은 풀이 무성했고 죽은 꽃 냄새가 신선한 살아있는 냄새와 뒤섞였다.” 19)

삶과 죽음이 혼재한 쿠리브리는 바로 그녀의 정신적 죽음과 혼돈을 반영한다. 그런데 그 쿠리브리가 마침내 불타고 안네트가 결국 미쳐서 감금됨으로써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며 그녀는 이산을 경험한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고향을 동시에 잃어 버린 것이다. 사실 안네트가 메이슨과 재혼한 것은 탈노예제도 이후 딸에게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주고 ‘모국’을 찾아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계급과의 어설픈 관계 맺음은 오히려 그 가족의 몰락을 촉진하였다.

사실 앙투아네트의 경우 ‘모국’에 대한 갈망은 쿠리브리에 대한 갈망과 직결되어 있다. 그녀에게는 쿠리브리는 이상적인 세계인 동시에 영국에 대한 심리적 동경의 현재적 구현체이다. 캐서린 J. 렌크(Kathleen J. Renk)는 그녀의 이런 심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헤게모니에 의해 규정된 영국 시골 저택을 모방한 그 저택을 앙투아네트가 신성시하는 것은 그녀가 다른 식민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이상, 목가적 가정을 숭배하도록 배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부유, 풍요, 이상적인 영국적 삶의 상징이다.<sup>6)</sup>

그녀는 「물방앗간 집 딸」이라는, “갈색 곱슬머리와 푸른 눈과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를 입은 사랑스러운 영국 소녀”(36)의 그림을 애지중지하며,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영국 소녀처럼”(35) 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국은 “불그레한 핑크빛(rosy pink)”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영국에 대한 지식은 지리책에서 얻은 것인데 그녀의 상상이 가미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

6) Kathleen J. Renk, *Caribbean Shadows and Victorian Ghosts: Women's Writing and Decolonization*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9), p. 112.

국에 대한 그녀의 동경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릇된 관념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현실에 반비례해 그곳은 그녀의 의식에서 점점 더 이상화된 모습으로 살아남는다. 그러기에 그녀는 로체스터의 영국 저택에 감금되어서도 끝내 그곳을 영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영국은 식민지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의 그녀의 과거의 위상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대변하는 동시에 잔인하고 차가운 현실이 아니라 목가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쿠리브리는 사실 영국 제국주의가 구현된 공간이며, 그녀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일면 그녀의 잠재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욕망의 표현일 따름이다. 식민지 지배계급의 시선을 탈피하지 못한 앙투아네트는 그 낙원과 신성함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잔인한 노예제도 및 가부장제도를 읽어낼 능력이 없다. 그녀에게는 노예해방으로 인해 자기가 누려야 할 행복이 박탈당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회한이 있지만 그녀는 그것이 담고있는 역사적 함의에는 끝내 눈을 돌려버린다. 실상 그녀의 가문은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노예소유주들”(95)이었으며, 아버지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의 언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녀의 언술에서 그녀는 자신을 희생자로만 그리며, 그녀에게 불리한 진술은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몰역사성이 그녀가 변화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영국에 대한 집착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영국의 잔인한 제국주의에 함몰되고 그 희생자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앙투아네트는 소설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백인(white people)”에 속하지 않고 “자메이카의 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데 강한 자의식을 보인다(18). 그 새로운 “백인들”이 앙투아네트 가족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그들에게 의탁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녀는 크리스토판인(Christophine)이 놀이 친구로 데려다 준 티아(Tia)라는 흑인 소녀와 어울리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하얀 니그로”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그녀는 노예해방 이후의 서인도 제도에서 식민지 지배계급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흑인들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맺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녀와 티아의 우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녀는 티아를 자신



의 정체성을 비추어 줄 “거울상(mirror image)”<sup>7)</sup>으로 보려는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 즉 탈노예제도 사회에서 타자화된 그녀는 티아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티아에게서 타자화 된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종편견에 의해 왜곡되고 식민지 지배/피지배 관계가 축소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문제의식도 지니지 못한다.

티아를 보는 앙투아네트의 시선에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그녀의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기에 티아가 그녀가 쳐놓은 규범을 벗어날 때 티아는 쉽게 “사기를 치는 검둥이”(24)가 되고 만다. 그러나 티아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거부한다. 그녀는 크리올들의 변화된 사회적 위상을 예리하게 읽고 있으며, “검은 검둥이가 하얀 검둥이보다 더 낫다”(24)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결국 흑인들이 쿠리브리 저택에 방화하는 날 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티아는 앙투아네트가 그녀에게 달려오자 돌을 던져 앙투아네트가 그녀에게서 갈망하는 또 다른 자아 이미지를 깨버린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티아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티아는 내 과거 삶에서 남은 전부였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었고, 나란히 잤고, 같은 강에서 먹을 감았다. 나는 달려가면서 나는 티아와 함께 살고 그 애처럼 될 거야 하고 생각했다. 쿠리브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 가지 않기 위해. 앓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나는 그녀가 모난 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으며 단지 축축한 것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다.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서처럼. (45)

사실 앙투아네트가 안네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크리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려는 심리적 표현이다. 그러나 “딱딱하고, 차갑고, 내 숨결로 김이 서린”(180) 거울은 오히려

7) Gregg, p. 95.

그녀의 온전한 자아상을 방해한다. 그것은 모호하고 포착할 수 없는 그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타자화된 그녀에 대한 자의식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김 속에서 드러나는 타자화된 자아는 “하얀 흑인”으로, 그것은 탈노예제도 사회에서 그녀에게 강요된 정체성이다. 그녀는 바로 그런 ‘흑인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것에 강한 거부감을 지닌다.

로체스터와의 결혼은 그녀가 가부장제 체제에서 경제적·성적 착취를 결합한 교환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영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재산과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로체스터에게 철저하게 예속된다. 노예제도 시대 크리올과 흑인 사이의 지배-종속관계가 신식민지 질서에서 본국 출신의 지배집단과 크리올과 흑인 사이의 새로운 지배-종속관계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일면 그런 예속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열망하기까지 한다. 로체스터와의 결혼은 그녀가 ‘모국’을 되찾고 ‘진정한’ 영국인이 되는 하나의 상징적 의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로체스터와의 관계에서 위기는 로체스터가 그녀를 아내로서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의 물화된 존재로 지배하려 할 때 찾아온다. 그녀는 로체스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크리스토퍼인을 찾아가 주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의 사랑을 (되)찾으려 한다. 그녀에게는 로체스터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크리올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모호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항상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91)라는 말은 그녀의 심리 기저에 깔린 불안을 엿보여준다.

양투아네트는 로체스터와의 결혼을 통해 그녀가 갈망한 대로 새로운 지배계급의 일원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적 파멸을 겪는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떠밀려 한 결혼에서 그녀는 로체스터로부터 그가 약속한 “평화, 행복, 안전”(79)이 아니라 무관심과 멸시와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체스터는 양투아네트라는 그녀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녀에게 버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강요함으로써 그녀를 그때까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타자 내지 흑인과 다름없는 열등한 존재로 다시 자리매김하

8) Carl Plasa, *Textual Politics from Slavery to Postcolonialism: Race and Identification* (Houndmills: Macmillan, 2000), p. 90 참고.

려 한다. 또한 로체스터는 버사라는 이름을 통해 그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녀를 그녀의 ‘미친’ 어머니와 연결시키고 그것은 그대로 그녀의 ‘광기’와 감금으로 이어진다. 결국 신식민지 질서는 구질서의 감금과 파괴를 통해서만 새로운 질서를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서의 수립에 안네트와 앙투아네트는 알게 모르게 협력한 셈이다.

앙투아네트는 어린 시절 흑인들이 쿠리브리 저택에 방화한 것에 극도의 공포와 반감을 지녔지만 그녀는 로체스터의 저택에 불을 지른다. 그 두 행위는 다같이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지만 그녀는 그 두 사건에서 그런 공통분모를 읽어내지 못한다. 그만큼 그녀는 가해자로서의 그녀의 계급에 대한 물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죽음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안젤리타 레이스(Angelita Reyes)는 그녀의 죽음을 서인도 제도로의 정신적 귀환으로 보며, 그 귀환을 “정신적 심리적 재결합을 통한 치료”<sup>9)</sup> 행위로 본다. 그러나 그녀의 귀향이 담고 있는 이런 함의는 결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로체스터의 저택에 방화하고 지붕 위에 서서 마지막 순간 상상 속에서 “무섭니?”(190)라는 티아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티아의 무시에 백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모하게 물웅덩이에 뛰어들었듯이 불 속에 뛰어들는다. 그러므로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찾는 티아는 그녀의 제국주의적 인종 편견이 개입된 ‘열등한’ 흑인이며,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본 것 중 하나가 「물방앗간 집 딸」인 것이 보여주듯이 그녀는 끝내 영국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가 서인도 제도로 ‘귀환’하는 것은 인종간의 갈등이 극복되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된 세계로의 전진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즉 그녀가 죽음으로 갈망하는 세계는 노예제도에 바탕을 둔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오롯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인도 제도이다. 그러므로 그곳으로의 귀환은 다름 아닌 ‘진정한 영국’으로의 귀환이며, 그만큼 그녀는 불행한 존재이다.

9) Angelita Reyes, *Mothering across Cultures: Postcolonial Represent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112.

## III.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역설적이게도 흑인들이 아니라 영국 부르주아 계급이다. 노예제도 폐지는 식민지 본국의 사회적·경제적 모순을 무마하기 위한 편리한 배출구 역할을 한다. 즉 영국은 내부의 불만 세력을 식민지로 돌림으로써 크리올들의 회생 위에 신식민지 질서를 수립한다. 그것은 식민지의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이고 한층 강화된 통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실 탈노예제도 이후 메이슨(Mr. Mason)이나 로체스터 같은 새로운 백인들을 서인도 제도에 끌어들이는 가장 큰 동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앙투아네트의 양아버지 메이슨은 노예해방 이후 폭락한 토지를 사들여 새로운 부의 기반으로 삼는다. 로체스터는 정략 결혼을 통해 부를 획득한다.

이들 본국의 부르주아들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구질서를 무자비하게 재단하고 재편한다. 그리고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들어온 한층 세련되고 더욱 통제적인 근대적 법과 제도이다. 크리스토퍼인은 그들의 그런 속성을 다음과 같이 꿰뚫어 본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법전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것. 그들은 행정장관을 가졌어요. 그들은 벌금을 가졌어요. 그들은 감옥과 한 사슬에 매인 죄수들을 가졌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다리를 부수기 위한 트레드 머신을 가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지독해요—더 교활하지요. 그 뿐이죠. (26)

그들은 서인도 제도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근대적 효율성과 법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인종편견이다. 그러기에 흑인들은 크리올들을 경멸하는 반면 이들 새로운 지배계급을 증오한다.

이들 새로운 백인들은 탈노예제도 이후 서인도 제도에서 흑인들이나 크리올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이다. 특히 크리올은 인종적으로 강한 친화력을 지닌 그들에게 쉽게 동화되려 한다. 안네트는 메이슨과 결혼함으로써 새로운 지배계급에 편입되려 했으며,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와 결혼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결국에는 영국의 새로운 지배 세력에게 포섭되고 억압당하며 파멸에 이르고 만다. 안네트의 비극이 메이슨과의 결혼 및 그의 몰이해에 기인했듯이 앙투아네트의 비극 역시 로체스터와의 결혼 및 그의 악의에 기인한다.<sup>10)</sup>

로체스터는 서인도 제도에서 철저하게 타자화 된 존재이다.<sup>11)</sup> 그의 언술에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이 깔려있다. 그가 겉으로 내뱉는 말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색채가 농후하지만 그는 자주 자신이 한 말에 의문을 품는다. 물론 그런 회의는 많은 경우 그의 의식 속에 간혀 있어 타인들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회의는 지배 계급으로서의 그의 이면을 잠식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 그의 사회적 위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그가 부당한 침입자라는 무의식적 죄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인도 제도에서 그의 삶은 그런 자기회의 및 죄의식과 싸우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에 다름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쉽게 법과 제도에 의지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타인을 지배한다. 그리고 앙투아네트가 가져다준 부의 의미를 축소하고(“당신의 보잘 것 없는 돈,” 170) 그가 겪는 고통과 분노는 극대화하는 한편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타인의 탓으로 돌림

10) 안네트의 비극은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앵무새의 날개를 메이슨이 잘라버리는 바람에 쿠리브리 저택에 화재가 났을 때 불타 떨어져 죽는 장면(43)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크리올들에 대한 상징적인 거세인 동시에 안네트의 파멸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훗날 앙투아네트가 불 속에 떨어져 죽을 운명임을 보여주는 음울한 전조이기도 하다. 또한 “누구시죠?(Qui est la?)”라는 그 새의 끊임없는 물음에는 새로운 지배계급에 대한 크리올들의 불안 및 정체성 추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그런 새의 죽음은 새로운 지배계급이 크리올들에게 가하는 강요된 침묵을 대변하기도 한다.

11) 이 소설에는 흥미롭게도 로체스터의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실에 대해 모나 페이어드(Mona Fayad)는, 로체스터는 주체적 존재로 이름을 밝힘으로써 그를 객관화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가 작품에 편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Mona Fayad, “Unquiet Ghosts: The Struggle for Representation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Modern Fiction Studies*, Vol. 34, No. 3, Autumn 1988, p. 443.) 한편 레이스는, 로체스터는 권리를 박탈당한 크리올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이지만 리스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의 특권을 박탈하고 그를 “a haunted and brooding colonial on a colonized island”로 바꾸어놓았다고 해석한다. (Angelita Reyes, pp. 85-86.) 이 두 해석은 일면 서로 상반되지만 로체스터는 실제 작품 속에서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으로써 부단하게 자기합리화를 꾀한다.

그는 아내는 물론 결혼 후 정착한 윈드워드 제도(Windward Islands)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도 느끼지 못한다. 그곳은 그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에게 끝까지 불길하고 적대적인 힘을 지닌 세계로 남는다(“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다—거칠고, 손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손대지 않았으며, 소외되고 불온하고 비밀스러운 사랑스러움을 지녔다” 87). 사실 그가 영국에서 그 먼 서인도 제도까지 온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목적 때문이다. 즉 차남으로서 당시의 장자상속법에 따라 재산 상속권이 없는 그는 안정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앙투아네트와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 그 당시는 「결혼한 여성의 재산에 관한 법」(Married Women’s Property Act)이 제정(1870)되기 이전으로 그가 앙투아네트와 결혼하는 순간 그녀가 양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3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은 그대로 그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청혼은 “적당한 감언과 약속”(91)에 불과하다. 그의 결혼은 그의 경제적 욕구와 앙투아네트의 사회적 욕구가 결합된 거래이다.

내가 그녀에게 준 행복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못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갈망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이방인, 나와는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다른 이방인이었다. (93)

영국/유럽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에게 그녀는 크리올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열등한 존재이다. “그녀는 순수한 영국 혈통의 크리올이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영국인도 유럽인도 아니다”(67)라는 그의 말에서 그런 그의 잠재의식을 읽을 수 있다.

제2장의 서두에서 결혼 이후 그를 지배하는 감정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모든 게 끝났다”(65)는 것이며, 그의 시선은 곧 아내가 아니라 아멜리(Amelie)라는 흑인 하녀에게로 옮겨간다. 그에게 아내는 부의 수단이자 “숨막힐 듯하고 사나운”(93) 욕정을 배출해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로체스터는 처음부터 앙투아네트를 물화 된 수단 내지 거래관계로만 파악한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3만 파운드에 팔렸다는 의식을 떨치지 못한다(“내가 그 여자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샀거나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70). 그러므로 그의 심리 근저에는 그가 서인도 제도에서 주체적 존재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물화 된 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앙투아네트와 주변의 모든 것을 더욱 철저하게 물화하려 한다. 그만큼 주체적 존재로서의 그의 위상은 불안하고 잠재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전복될 위험에 있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를 하나의 물화된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상 그녀를 파괴하는 것은 그에게는 거의 필연적이다. 그는 그녀를 파괴함으로써만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존재로서의 앙투아네트는 언제든지 그에게 위협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전복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간다. 실제로 앙투아네트가 ‘미친’ 원인은 그가 아멜리와 성관계를 가진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정에 대한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발을 의도적으로 장모의 광기와 연결시켜 그녀를 “수치스러운 어머니의 수치스러운 딸”(186)로 몰아붙인다. 또한 그녀의 ‘광기’를 크리스토파인의 탓으로 돌려 그녀를 추방하고 앙투아네트를 철저하게 고립시킨다.

로체스터는 어느 점에서는 앙투아네트와 비슷한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다. 그는 차남으로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서인도 제도까지 와서 정략결혼을 하였다. 따라서 그 역시 당대 제도의 희생자이다. 그는 자신이 서인도 제도로 밀려났다는 의식을 떨치지 못하며, 더구나 다니엘로부터 앙투아네트의 어머니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후에는 자신이 아버지가 꾸민 더러운 정략의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인도 제도에서 쉽게 지배자로 탈바꿈하며, 자신이 국외자라는 의식에 비례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더욱 잔인하게 소유하고 지배하려 한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 파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모가 미친 여자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심리적 요인은 그가 앙투아네트의 두 번째 남자라는 사실이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도 혼혈 남자였다는 사실은 백인 지배자로서의 그의 자존심과 심리에 지울 수 없는 타격을 가한다.<sup>12)</sup> 그는 그의 ‘소유

12) Hilda van Neck-Yoder, "Colonial Desires, Silence, and Metonymy: 'All Things Considered' in *Wide Sargasso Sea*,"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40, No. 2, Summer 1998, pp. 195-196 참고.

물인 아내가 타인에 의해 이미 더럽혀졌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그 남자가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그녀를 감금하고 완벽히 물화시켜 소유하려 한다(“그녀는 미쳤지만 나의 것, 나의 것이다,” 166. 강조 원문). 그녀가 ‘이미’ 더럽혀졌다는 것은 지배자로서의 그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다. 타자를 ‘손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오롯이 전유하는 것이 가부장적/제국주의적 욕망의 본질이다. 또한 모든 것을 타자화하고 물화해 소유하려는 이런 강렬한 소유욕이야말로 근대적 정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는 “신에게 버림받은 땅”(160)인 서인도 제도의 자연에 당황하고 적대감과 위협을 느낀다. 그곳은 그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강렬하고 선정적이다. 그런 이교도적인 세계에서 그는 그곳의 걸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감추고 있는 것”(87)을 알려는 욕망을 지녔다. 그는 사물의 본질을 파고들어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완벽하게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서구 편향적인 눈으로는 그런 욕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하여 그것을 그가 해석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강한 제국주의적 욕망을 지녔다. 그리고 그런 욕망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그에게 서인도 제도의 자연과 아내는 동일선상에 있다. 그리고 그 양 세계는 그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불순한 세계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지쳤다. 나는 그들의 웃음과 눈물, 그들의 아침과 질투, 자만과 책략을 싫어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증오했다. ...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는 마법과 사랑스러움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로 하여금 갈망하게 했고 내 전 생애는 내가 발견하기도 전에 잃어버린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될 것이다.(172)

사실 그가 아멜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는 그녀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서인도제도를 오염시키고 앙투아네트를 아멜리와 같은 ‘흑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미 백인의 문화에 오염된 아멜리(그녀는 혼혈이다)를 다시 오염시킴으로써 그 존재의미를 무화하려는 것이다. 아멜리가 상징하는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가 혼재된 서인도 제도는 그에게는 유혹인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의 눈에 열등한 문화를 대변하는 서인도 제도에 대한 그의 이런 양가적인 태도는 자기경멸로 이어



진다. 즉 서인도제도의 유혹이 강한 만큼 자기보호의 욕망에 따라 그것에 대한 그의 경멸도 강해진다.

그는 불가해한 것을 불가해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유하는 데서만이 안정과 평화를 느낀다. 그는 모든 것을 적대적인 위치에 놓고 그의 의지에 굴복시킴으로써만이 힘의 우위를 증명하려 한다. 그에게 서인도 제도의 모든 것은 오직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아내의 감금이다.

그는 아내를 영국으로 데려가 그의 저택 다락방에 감금하고 그녀에게서 거울을 박탈함으로써,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버사로 바꿈으로써 그녀를 완전히 소유한다. 그리고 부단한 감시를 통해 그녀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한다. 그녀의 감금은 세계에 대한 그의 제국주의적 전유가 완성되는 순간이지만 그는 타자를 철저히 무화시킴으로써 자신 역시 무화된 존재(nothing)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오직 회피되고, 감금되고, 모든 기억과 마찬가지로 전설이 될 날”(172)을 기다린다. 결국 지배자의 기록된 역사는 피지배자의 기록되지 않은 감금된 기억을 밀어내 버리고 결국에는 시간의 망각 속에 승리하리라는 오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망각 속에서 피지배자의 기억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 IV.

탈노예제도 이후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와 억압은 훨씬 더 구조화되고 내면화된다. 특히 새로운 지배계급과 흑인들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고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타자화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크리올들은 그들에게 각인된 흑인상을 의식하고 흑인들에게서 부단하게 거울상을 찾은 반면 새로운 백인들은 흑인들과의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앙투아네트가 끊임없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상을 정립하려 한 반면 로체스터는 자신을 비추어 볼 거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새로운 백인 지배계급은 타인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규정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크리올과 흑인들은 새로운 백인들에 의해 타

자화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흑인들은 크리올과는 달리 많은 경우 전복적인 기능을 한다. 그들은 때로는 크리올과 협력하거나 경쟁하고 새로운 백인들과 적대적 위치에 섬으로써 백인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들의 헤게모니를 해체한다. 물론 리스가 『드넓은 조해』에서 흑인들을 크리올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그리고 있으며 크리스토포인을 제외한 아멜리와 다니엘의 묘사에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정성을 통해 오히려 백인 사회의 왜곡된 욕망을 드러내 보이며 백인들의 지배에 대한 효과적인 되받아치기를 수행한다.

흑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리올이나 새로운 백인들에게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동물적이고 백인들의 어두운 자아가 투사된 존재이다. 그러나 흑인들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아상에 저항한다. 그들은 백인들의 오만한 지배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거나 방화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저항과 분노를 표현한다. 또는 뱀티스트(Baptiste)처럼 백인에게 ‘나리(sir)’나 ‘주인님(master)’ 같은 경칭을 사용하기를 거부(142)함으로써 그들의 권위에 저항한다. 물론 그들의 그런 행동은 역으로 백인들에게 그들의 왜곡된 흑인상을 합리화하고 흑인을 억압하고 추방하는 구실로 이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백인들의 자아상을 뒤흔들어놓고 그들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백인에 대한 흑인의 분노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쿠리브리 저택의 방화이다. 그들은 쿠리브리를 태워버림으로써 백인들의 지배에 저항한다. 낮을 든 한 흑인이 백인들을 가리켜 “지네를 짓이겨 놓으면… 한 조각만 남아도 다시 자라난다”(43)고 말하는 데서 그들이 백인들에 대해 지닌 증오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쿠리브리 저택에 대한 방화는 탈노예제도 이후 크리올과 새로운 백인 지배계급 사이의 결탁에 대한 흑인들의 경고인 동시에 흑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파괴행위이기도 하다. 이 방화로 노예제도의 상징이라 할 쿠리브리는 다시 자연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가 밀림으로 바뀐 것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정신을 움아매었던 교회와 그들의 육체를 움아매었던 장원이 차례로 원시적인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흑인들의 자기치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백인들에게 침범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의 복귀의식이다.

『드넓은 조해』에서 흑인 인물들의 중심은 크리스토파인이다. 크리스토파인은 앙투아네트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결혼선물”(21)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철저히 물화된 존재이다. 크리스토파인은 자기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앙투아네트 집안의 가구로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도 안네트와 앙투아네트는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녀는 칼 플라자(Carl Plasa)가 지적하듯이 백인들에게 “검은 대모”<sup>13)</sup> 역할을 한다. 그녀는 몰락한 앙투아네트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앙투아네트에게는 “나의 아빠, 나의 유모”(72)이다. 특히 앙투아네트가 크리스토파인을 단순히 유모가 아니라 ‘아빠’라고 인식하는 데서 그녀가 지닌 역할의 넓이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크리스토파인은 영국 제국주의가 서인도 제도에 처놓은 제도의 틀을 교묘하게 위반하고 침해한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금지한 오비어 의식을 행해 쫓기는 몸이고, 로체스터의 권위에 계속 도전하며, 남편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또한 그녀는 구지배 세력과 새로운 지배세력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 사실 앙투아네트의 의식과 행동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그녀라면 로체스터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 역시 그녀이다. 그녀는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두 세계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그 세계의 분열을 촉진한다.

크리스토파인은 암암리에 서인도 제도에 대한 백인들의 지배에 전복적인 기능을 한다. 그녀는 표면적인 순응 속에서 그 지배체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그 토대를 잠식한다. 역설적이지만 앙투아네트가 그녀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그녀에 대한 크리스토파인의 영향력은 커지며 그녀는 주체적 존재로 설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남편 로체스터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로체스터가 “이 무지하고 완고한 늙은 검둥이”(112) 크리스토파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앙투아네트에게 지닌 영향력 때문이다. 그녀는 앙투아네트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가부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또한 그녀는 로체스터의 의도를 본질까지 꿰뚫어 보고 그에게 부단한 회의와 죄의식을 불러일

13) Carl Plasa, p. 90.

으키고 그것을 좌절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당신은 그녀의 돈을 원하지만 그녀를 원치는 않아요. 당신은 마음 속으로 그녀가 미친 것으로 치부하지요. 전 그걸 알아요. 의사들은 당신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지요. 그 리처드라는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말해주도록 바라는 것만 말하지요—기쁘게 기꺼이 말이지요. 전 알아요. 그녀는 자기 어머니처럼 될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나요? 하지만 당신은 사탄처럼 사악해요. (160-161)

로체스터가 크리스토파인의 오비어 의식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효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유럽인들이 흑인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탄압하고 배척함으로써 기독교를 특권화하려는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오비어 의식을 통해 앙투아네트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독교에 바탕을 둔 그의 가치관을 교란시킨다. 앙투아네트는 오히려 크리스토파인의 오비어 의식에는 의지하면서도 양아버지 메이슨의 기도를 조롱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뱀티스트가 밀립 속에서 교회 터로 나 있는 길의 존재를 로체스터에게 끝내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심리적 거부감을 보여준다. 기독교는 그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백인들의 제국주의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크리스토파인이 앙투아네트에게 행하는 오비어 의식은 주술적 맥락이 전제되어 있지만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토파인이 지닌 바로 그런 ‘합리성’이 로체스터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된다. 그것은 그가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가치를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크리스토파인을 오비어 의식을 행한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쫓아내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다니엘은 서인도 제도의 식민체제가 지닌 또 다른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흑백혼혈로 다른 흑인들보다 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가 명확한 성(姓)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의 불안정성과 그의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버사라는 이름을 붙일 때 “버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 다른 사람으

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오비어란 말예요.”(147)라고 말하며 강한 저항을 보이면서도 다니엘의 성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의 정체성을 부인한다(“그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라고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그에게 그런 게 있다면, 다니엘 보이드예요,’” 128). 즉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저항하면서도 다니엘에게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이처럼 그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의해 마음대로 규정당하고 부정당한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런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그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는 백인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의 산물인면서도 그 욕망이 담고 있는 함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흑인과 백인의 양 세계에서 어느 쪽에도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크리스토파인보다 훨씬 더 전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바로 백인 식민체제가 만들어놓은 사생아로서 백인들이 스스로 그려놓은 지배체제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의 극화이다. 즉 백인들은 결국 흑백혼혈을 통해 그들의 인종 구분에 바탕을 둔 식민체제가 얼마나 허구인지 부지불식중에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가장 큰 동력이다.

그는 로체스터의 지배욕을 자극해 궁극적으로는 그를 욕망의 노예로 만든다. 다니엘은,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앙투아네트의 배다른 혼혈 형제로 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증오심의 밑바닥에는 노예제도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 있으며, 그런 심리는 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탈해간 백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그는 로체스터에게 편지를 보내 진실이라는 이름 하에 코스웨이(Cosway) 가의 비밀을 폭로해서인도 제도에서의 잔인한 노예제도를 폭로한다. 그의 편지가 지닌 전복적 기능에 대해 플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편지는 일종의 수정주의 사료편찬에 해당한다. 그것은 노예 소유주가 ‘경건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약자에게 자비롭다’고 기념되고 있는 공식적인 식민지 연술의 ‘거짓말’을 수정한다.<sup>14)</sup>

이처럼 그는 식민지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기록해둔 역사를 전복하고

14) *Ibid.*, p. 93.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폭로한다. 그의 이야기는 서인도 제도의 억압된 역사이며 그의 편지는 그것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그러기에 그의 언어는 지극히 순종적인 억양 뒤에서 때로는 거칠고 야비하며 불순하고 위협적이다. 그리고 그의 겸손한 태도 뒤에는 끊임없이 협박과 위협이 숨어 있다. 그의 언행이 일탈적이면 일탈적일수록 그것은 백인들의 교양과 세련 뒤에 숨어 있는 타락하고 추악한 욕망을 폭로한다. 다니엘은 바로 백인들의 그런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로체스터를 위해 편지를 쓰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언술의 날은 항상 로체스터를 향하고 있다. 그의 언술은 지배자의 시각에서는 악의에 차 있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그 속에는 지배 언술이 감추려 애쓴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다. 그만큼 그의 언술은 백인의 지배체제를 끊임없이 흔들고 전복하려 위협한다.

그레그는 다니엘을 “남편의 그림자”로 다같이 “섹슈얼리티, 젠더 및 경제와 연결된 억압된 폭력의 역사의 소산들”<sup>15)</sup>으로 자리매김하지만 로체스터와 다니엘의 속성은 다르다. 다니엘은 영국인과 크리올의 분열을 조장한다. 그는 로체스터에게 보낸 두 번의 편지와 한 번의 대면에서 식민지 지배자들의 언술을 끌어들여 그것을 되받아 친다. 그리고 그 유대를 파괴하고 식민지배체제를 해체한다. 그가 자신을 다니엘이 아니라 이소(Esau)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그곳의 정당한 상속자이며 그것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결국 다니엘이 노리는 것은 로체스터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가 차남으로서 부당하게 상속권을 박탈당한 존재라는 인식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앙투아네트의 두 번째 남자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그를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의 권위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아멜리 역시 다니엘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녀는 로체스터를 유혹하고 추파를 던짐으로써 마침내 그와 성관계를 갖게 되며 그 행위를 통해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한다. 아멜리는 로체스터를 사이에 두고 앙투아네트와 끊임없이 경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그녀와 물리적 싸움을 벌임으로써 그녀의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부정한다. 그녀에게 앙투아네트는 그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여자일 뿐이며 어떤 권

15) Gregg, pp. 113-114.

위와 특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아멜리는 티아의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티아의 영악함에 아멜리의 육감적인 성적 매력이 더해질 때 그것은 백인들에게는 위협과 욕망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한다. 그녀는 백인 남성의 감추어진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하얀 가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지배욕을 폭로하고 또한 앙투아네트의 백인 여성으로서의 성에 대한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한다. 따라서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에 대해 성적으로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그녀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위협을 받는다. 어린 시절 티아가 그녀의 옷을 입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녀가 티아의 옷을 입고 가야만 했던 그런 전도된 관계가 로체스터와의 성의 교환에서 완성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로체스터의 성을 차지한 것은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아멜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앙투아네트의 완전한 몰락과 몰화를 초래하며, 로체스터의 자기부정을 완성한다.

## V.

크리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가 서로 얽혀 충돌하는 가운데 독특한 문화를 생산해냈다는 것이다. 크리올 문화의 이런 특징은 전지구적으로 문화와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접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드넓은 조해』는 바로 이런 독특한 문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19세기 영국의 식민주의를 파고들어 지배문화를 해체하고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다성적인 목소리와 이질적인 언어 및 인종의 갈등과 충돌은 서구 제국주의의 비인간성과 잔인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배태하기 위한 맹아이기도 하다.

『드넓은 조해』에서 영국령 서인도 제도는 183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노예제도 폐지의 결과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크리올은 급속히 몰락하고 그 틈바구니를 본국에서 온 새로운 백인들이 메움으로써 문화적, 인종적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그런 구질서의 해체와 재편 와중에 크리올은 물론 흑인과 새로운 백인 지배

계급은 모두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특히 크리올은 어느 집단보다도 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앙투아네트는 흑인들에게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만 뿌리깊은 인종편견과 우월 의식으로 인해 실패한다. 또한 새로운 백인 지배계급인 로체스터와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시의 가부장제적인 제도와 로체스터의 악의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 반면에 로체스터로 대변되는 새로운 백인 부르주아들은 근대적인 법과 제도로 서인도 제도의 질서를 재편하고, 그런 가운데 크리올들을 열등한 종족으로 전락시키고 흑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의 하얀 가면 뒤에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와 불안이 깊이 잠재되어 있다. 한편 크리스토파인과 다니엘과 아멜리로 대변되는 흑인들은 크리올과 새로운 백인의 문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그들의 헤게모니를 전복하려 한다. 『드넓은 조해』에서 흑인들은 대부분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그런 주변성과 부정성이 흑인의 하위문화를 만들어낸 백인 사회의 비인간성과 잔인함을 폭로한다. 그런 면에서 『드넓은 조해』는 에밀리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서 드러나는 제국주의 지배연술에 대한 효과적인 되받아치기를 하고 있다. 즉 그것은 영국의 지배문화에 매몰되어 버린 제3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적이거나 복원해냄으로써 그들을 문화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참고문헌

-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역, 서울: 한길사, 2001.
- Bronte, Charlotte. *Jane Eyr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60.
- Erwin, Lee. "'Like in a Looking-Glass': History and Narrative in *Wide Sargasso Sea*," *Novel: A Form on Fiction*, Vol. 22, No. 2, Winter 1989.
- Fayad, Mona. "Unquiet Ghosts: The Struggle for Representation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Modern Fiction Studies*, Vol. 34, No.



- 3, Autumn 1988.
- Gregg, Veronica Marie. *Jean Rhys's Historical Imagination: Re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5.
- Hogan, Patrick Colm. *Colonialism and Cultural Identity: Crises of Tradition in the Anglophone Literatures of India, Africa, and the Caribbe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Neck-Yoder, Hilda van. "Colonial Desires, Silence, and Metonymy: 'All Things Considered' in *Wide Sargasso Sea*,"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40, No. 2, Summer 1998.
- Plasa, Carl. *Textual Politics from Slavery to Postcolonialism: Race and Identification*. Houndmills: Macmillan, 2000.
- Renk, Kathleen J. *Caribbean Shadows and Victorian Ghosts: Women's Writing and Decolonization*.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9.
- Reyes, Angelita. *Mothering across Cultures: Postcolonial Represent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Rhys, Jean. *Wide Sargasso Sea*. New York: Norton, 1982.